

‘해결사’ 오선우·‘무실점’ 장현식... KIA, 기분좋은 시작

한화와 연습경기 3-0 승... ‘3타점’ 오선우, 2경기 연속 뜨거운 타격감 ‘선발 실험’ 장현식, 2이닝 무실점... 불펜 제구 난조에 만루 위기

KIA 캠프 첫 홈런 타자 오선우가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9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1회 첫 타석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린 오선우는 3회에도 타점을 기록하는 등 멀티히트와 함께 3타점을 수확했다.

지난 7일 챔피언십에서도 열린 자체 연습경기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날렸던 오선우는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치며 5타점째를 수확했다.

한화의 새 외국인 선수 카펜터가 선발로 나선 이날, 1회초 선두타자 최원준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선빈이 좌전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어 타자가 좌중간을 가르면서 1사 2·3루.

나지완의 삼진으로 투아웃이 됐지만 5번 타자 겸 지명 타자로 나선 오선우가 우측 2루타로 주자 두 명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3회초에도 오선우 앞에 주자가 있었다.

김선빈의 볼넷과 타커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진 2사 1·2루, 오선우가 이번에도 우측으로 공을 보냈다. 2루에 있던 김선빈이 홈에 들어오면서 오선우의 타점이 추가됐다.

오선우는 두 타석을 소화한 뒤 백용환으로 교체됐다. 지난 7일 연습경기에서 오선우에 이어 담장을 넘겼던 백용환도 이날 좋은 타격감을 과시했다.

6회 선두타자로 나온 백용환은 3루 쪽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다. 3루수 노시환의 호수비에 막혀 땅볼이 됐지만 좋은 타구였다.

백용환은 9회초 두 번째 타석에는 우측 2루타를 때리며 공격력을 과시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로 출격한 장현식에 시선이 쏠렸다.

합평 캠프에서 ‘비장의 무기’로 시즌을 준비한

장현식은 2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1회말 정은원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은 장현식은 두 번째 공으로 2루 땅볼을 만들었다. 2번 노시환과의 승부에서는 초구 헛스윙을 유도한 뒤 3구째 우익수 플라이를 기록했다.

3번 하주석에게도 초구 스트라이크를 넣은 뒤 3구에 승부를 끝냈다.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2사 1루가 됐지만, 외국인 타자 힐리도 3개의 공으로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1회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1회와 달리 2회에는 모두 초구 볼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성열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고, 최재훈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바깥쪽 높은 공으로 임종찬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유장혁은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27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불펜진의 제구는 아쉬웠다.

처음 연습경기에 출전한 ‘루키’ 이승재와 김양수가 좋은 구위는 보여줬지만, 각각 두 개의 볼넷을 기록했다. 김양수는 2개의 몸에 맞는 볼도 남겼다.

불펜의 제구 난조에도 ‘마무리 후보’ 정해영은 첫 실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다.

정해영은 첫 타자 이동훈에게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최인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포수 이정훈이 스타트를 끊은 주자를 잡아주면서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또 정은원의 유격수 땅볼 때 1루수 황대인의 좋은 포구가 나오면서 정해영은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장식했다.

경기는 KIA의 3-0 승리로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아니다. KIA는 5회말 2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투구수 제한으로 이닝이 종료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잘했어~” KIA 오선우(왼쪽)가 9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 1회초 2사 2·3루 상황에서 2타점 2루타를 때린 뒤 이현근 주루코치(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무관중’ 프로야구 시범경기

10~20일 팀당 10경기...KIA, 삼성·NC·롯데·키움·KT 상대

2021년 KBO리그 시범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린다. KBO는 9일 “10개 구단과 관련 사항을 논의해 2021 시범경기의 무관중 운영을 결정했다”며 “더 안전하게 정규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 한다”고 밝혔다.

KBO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시범경기 일정을 진행한다.

시범경기는 겨우내 야구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KBO리그 시작을 알리는 무대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가 결정됐다.

대신 KBO 각 구단은 중계방송을 통해 겨우내 준비한 것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KIA는 20·21일 삼성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시범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창원으로 가서 22·23일 NC를 상대하고 이후 홈에서 남은 6경기를 치른다. 25·26일 롯데와 경기를 갖는 KIA는 키움(27·28일), KT(29·30일)와의 경기를 통해 시즌 리허설을 끝낸다. /김여울 기자 wool@

프로야구, 또 학폭 의혹

광주 중학시절 흥기 위협 폭로... 해당 선수, 당분간 훈련 제외

프로야구 KBO리그에 학교 폭력 의혹이 또 나왔다.

소속 구단은 가해 의혹을 받는 해당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구단 관계자는 9일 “지난달 24일 학창 시절 소속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가 구단에 신고했다”며 “이에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소속 선수에게 가해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해 “피해 호소인과 소속 선수의 주장 내용은 다른 점이 많다”며 “구단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 의혹을 받는 선수는 훈련에서 제외됐으며 당분간 연습경기 등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피해 사실을 구단에 신고한 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선수는 광주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때 물고문을 하고 흥기로 위협하는 등 도를 넘는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재성, 한달 만에 5호 골

휴스타인 킵, 함부르크와 1-1

이재성(29)이 리그 5호 골을 터트리며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휴스타인 킵의 승점 사냥에 앞장섰다.

이재성은 9일(한국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폴크스스파르크슈타디온에서 열린 함부르크와 2020-2021 2부 분데스리가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8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이재성의 리그 5호 골이다. 지난달 9일 포르투나 뒤셀도르프와 20라운드에서 쉐기 골을 터트린 그는 한 달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독일축구협회(DFB) 포켓에서 넣은 두 골을 합하면 이번 시즌 7번째 득점이다.

킵은 이재성의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앞섰으나, 이내 함부르크에 동점 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승점 1을 더한 킵은 리그 2위(승점 46)를 유지했다. 선두 보훔(승점 48)과 승점 차는 2에 불과하다. 함부르크는 킵의 뒤를 이어 3위(승점 43)에 자리했다.

전반 23분 지른 테로데가 동점 골을 뽑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후반 양 팀 모두 균형을 깨지 못한 채 승점 1을 나눠 가졌다. /연합뉴스

코리안 메이저리거들 ‘시간이 필요해’

양현종, 첫 시범경기서 피홈런 김하성, 13타수 2안타 타율 0.154 김광현, 3.2이닝 4실점 ‘부진’

한국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초반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다.

올 시즌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은 물론, 지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투수 김광현도 출발은 좋지 않다.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는 4일 뉴욕 메츠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2이닝 동안 피안타 4개, 볼넷 2개를 내주며 4실점(3자책점)으로 부진했다.

9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범경기에서 2.1이닝 6피안타 1볼넷 4실점으로 난타당했다.

김광현의 올 시즌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21.00이다. 피안타율은 0.556이다.

지난해 시범경기 성적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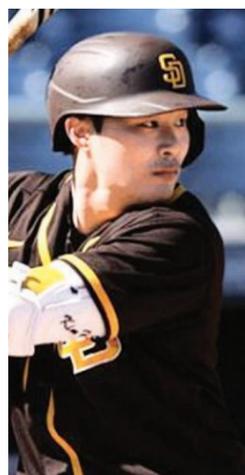
김광현은 지난해 5차례 시범경기에서 등판해 9이닝 동안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았고 피안타율은 0.156에 불과했다.

류현진은 지난 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에서 2이닝 1피안타(1홈런)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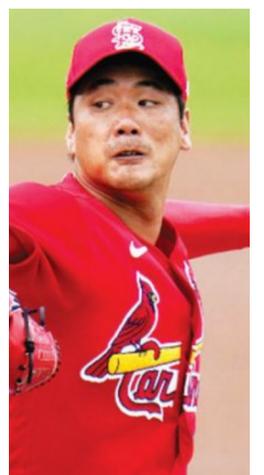
다만 류현진은 매년 시범경기 초반 전력으로 던



양현종



김하성



김광현

지지 않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밟는다.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올 시즌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김하성도 시범경기 성적이 아쉽다.

김하성은 6차례 시범경기에서 13타수 2안타 1볼넷 타율 0.154를 기록 중이다.

우려대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고전하고 있다.

백리그와 마이너리그의 갈림길에서 있는 양현종도 시범경기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그는 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시범경기 8회에 등판해 1이닝

2피안타(1홈런) 1실점 했다.

현기 매체들은 양현종이 불펜투수로 개막 엔트리 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시범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은 한국 출신의 빅리거 중 가장 출발이 좋다.

그는 시범경기 3경기에서 6타수 3안타 3득점 타율 0.500, OPS(출루율+장타율) 1.333으로 맹활약 중이다. /연합뉴스